

KETI 지원 기업제품, ‘CES 2026’ 혁신상 20개 수상

지난해 19개 수상 넘는 역대 최대 기록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 가시적 결실
엘비에스테크 ‘MaaS-Bridge’ 주목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지원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 20개를 수상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KEIT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6에서 KEIT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 제품 총 20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개 수상을 넘어선 성과로, 산업통상부와 KEIT의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가시적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가장 주목받은 기술은 엘비에스테크가 개발한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MaaS-Bridge’다. 일반 지도에는 없는 ‘계단 없는 길’, ‘보도 턱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교통약자에게 최적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KEIT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 제품 총 20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KEIT

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기술로, 기술적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아 CES 최고 영예인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딥엑스는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기술로 혁신상을 받았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력 소모를 대폭 낮추면서도 높은 처리 성능을 구현해, 서버 연결 없이 현장에서 즉각

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 의수 개발 기업 만드로는 실제 손과 유사한 정교한 움직임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손 ‘Mark 7X’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손목 근육의 움직임과 압력을 센서로 감지해 손가락을 개별 제어할 수 있어, 기술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

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KEIT은 이번 CES 2026에서 ▲ATC + 공동관 ▲센서·파워반도체관 ▲휴머노이드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관 등 총 3개 분야의 공동관을 운영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또 현장 부스를 직접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CES 혁신상 수상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도전 정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혁신 성과가 수출 확대와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동발전, ‘KOEN 펜싱 실업팀’ 창단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펜싱 실업팀 창단에 나선다. 남동발전은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체육회에서 강기훈 남동발전 사장,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 회장, 정재규 경상남도펜싱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KOEN 펜싱 실업팀’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HD현대마린솔루션, 동반성장펀드 조성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IBK기업은행과 ‘공급망 ESG동반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HD현대마린솔루션 김정혁 경영지원부문장, IBK기업은행 이대성 본부대기업금융센터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LG U+, 버킷리스트 행사 4만명 참여

‘심플리 유플러스’ 브랜드 캠페인
가족·도전 등 최종 5인 사연 선정

LG유플러스는 ‘심플리 유플러스(Simply. U+)’ 브랜드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이벤트가 2주간 약 4만 명의 참여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5인의 사연과 소원이 실현되는 과정은 LG유플러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자신의 소원과 사연을 접수하면,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고객의 바람을 실제로 이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총 4만1736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소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본인을 위한 소원이 73%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위한 소원 25%, 친구·

동료를 위한 소원 1%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여행·휴식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족·효도(36%), 경험·도전, 건강·자기관리, 재정 관련 소원이 뒤를 이었다. 사연에 담긴 주요 감정 키워드로는 ‘도전’, ‘성취’, ‘보상’ 등이 두드러졌다.

LG유플러스는 접수된 사연 가운데 ▲아버지의 웃음을 되찾고 싶다는 가족 사연 ▲개인 작품 전시를 꿈꾸는 도전 사연 ▲다문화 학생들을 응원하는 간식 차 지원 요청 ▲어머니의 호프집을 연말 분위기로 꾸미고 싶다는 사연 ▲택배 업무로 힘든 배우자를 위한 여행 선물 등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이벤트는 LG유플러스의 통합 앱 ‘유플러스원(U+one)’을 통해 진행됐다. U+one은 MY, 스토어, 혜택, 플러스, AI 검색 탭 등을 통해 고객이 주요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칠성음료, 일상 속 친환경 알린다

100% 재생 MR-PET 칠성사이다
출시 기념 공식물 게임행사 진행

롯데칠성음료가 100% 재생 MR-PET 칠성사이다 출시를 기념해 공식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1월 31일까지 ‘MR.펫권의 지구별 대모험’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10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100% 재생 MR-PET 칠성사이다는 페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재성형한 물리적 재활용 방식으로 만든 제품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일상 속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게임을 제작했다.

‘MR.펫권의 지구별 대모험’ 게임은

지난 10월 공개된 MR-PET 칠성사이다 광고 캠페인 ‘펭귄 편’과 이어지는 콘셉트로 용기를 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칠성사이다 별을 타고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담았다. 100% 재생 페트를 뜻하는 MR-PET의 MR과 펭귄을 합친 ‘MR.펫권’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친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게임은 방향 키와 점프 키를 사용해 펭귄이 얼음 위로 도약하며 더 높이 올라가도록 조종하는 방식이다. 게임에서 칠성사이다와 별을 모으면 게임 시간이 연장되거나 부스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펭귄이 높이 올라간 순위에 따라 경품이 지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정신아 카카오 의장, 신입 크루와 소통

카카오그룹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정신아 의장(사진 가운데)이 신입 공채 크루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의장과 대화·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정신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입 크루들에게 ‘AI 네이티브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카오



삼성바이오,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후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국생물교육학회와 함께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 두번째부터)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김경아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 유승호 부사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BGF리테일, 협력사 동반성장 경영 특강

BGF리테일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BGF사옥 대강당에서 전국 50여 개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협력사 초청 동반성장 경영 특강’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트렌드 분석가인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서 ‘2026년 소비 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BGF리테일

인사

◆ **KCGI자산운용** ◇승진 <전무> △주식운용본부장 김홍석 <상무보> △채널마케팅본부장 이지숙 <이사대우> △상품전략팀장 송정순

◆ **동행미디어시대** △사장 오병상

부음

▲ 이상진씨 별세, 이은희(수원가정법원장)씨 부친상, 최창범(중앙대 교수)씨 장인상=8일, 포항세명기독교병원장례식장 5층 특실, 발인 10일 오전 11시, 장지 포항시립우현화장장(영덕남산선영), 054-275-0005.

‘韓 퍼스트브랜드 대상’ 18년 연속 수상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사의 먹는샘물 ‘석수’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먹는샘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18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국내 먹는샘물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각 산업군에서 한 해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즈다. 매년 대규모 소비자 참여 조사와 전문가 심의를 통해 브랜드 기대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석수는 장기간 축적된 브랜드 신뢰도와 안정적인 제품 운영을 바탕으로 먹는샘물 부문에서 소비자 평가 전반에 걸쳐 고른 점수를 받으며 최종 선정됐다. 특히 18년 연속 수상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던 점에서 국내 먹는샘물 시장을 대표하



하이트진로음료 ‘석수’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 18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하이트진로음료

는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석수는 1982년 출시된 이후 안정적인 품질 기준과 일관된 브랜드 운영을 통해 오랜 기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인증 받았으며, 세계적 식품 품평회인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는 8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공식 먹는샘물로 지정되며 브랜드 신뢰성과 상징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